

FOMC 3년만의 긴축 전환 및 추가 인상 시사에 3대지수 하락



미국시황/ESG 김윤정 _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hyseong@ls-sec.co.kr

FOMC·워시의장 발언 여파에 증시 하락... 금융주 약세·기술주 선방

- 미 증시는 DOW -1.21%, S&P500 -0.45%, NASDAQ -0.01% 하락. 기술주, 헬스케어 상승, 에너지, 금융, 통신서비스 등 약세
- FOMC 금리 결정은 무난히 소화했으나, 케빈 워시 의장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매파적 색채에 낙폭 확대. 단기금리의 상대적 오름 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수익률곡선 평탄화에 따른 금융주 약세 흐름

FOMC 금리 인상, 포워드가이던스·워시 의장 매파적 발언은 추가인상 시사

- 기준금리 +0.25%p 만장일치 인상, 3년 2개월만에 긴축기조 전환. 포워드가이던스 상 연말 중립금리 4.1% 수준, 연내 한차례 추가 인상 시사
- 워시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적. 미국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이는 한편 올 여름 물가지표는 기초적 흐름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보기 어렵다고 발언. 또한 연준의 독립성 관련 우리의 차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언급
- 국채금리 상승 10Y 5.02%(+2.4bp) 2Y 4.74%(+7.9bp). CME FedWatch 12월 금리인상 확률 88.7%(25bp 50.1%, 50bp 38.6%). 추가 인상이 중간선거를 앞둔 10월보단 12월에 진행될 가능성을 높게 전망

유가는 공급망 우려 완화에 하락, 소매판매 지표 개선세

- 국제유가 하락 WTI \$102.4(-3.2%), Brent \$105.8(-2.7%). 사우디 동서송유관 폐쇄 후 오만 소하르항 인근 해상을 통한 우회 수출로 확보 및 아랍코의 수일 내 동서송유관 수송능력 복구 방안 추진 소식에 공급 우려 일부 완화. EIA가 발표한 미 원유재고 감소분(-64만 bbl)이 시장 예상(-160만 bbl)보다 적었던 점도 유가 하락 요인
- 8월 소매판매 MoM +1.2% 전월·컨센 상회, 1개월만에 증가세 전환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INTC	인텔	+4.0%	SK하이닉스(+0.02%)와 미국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협력을 논의 중이라는 로이터 보도에 추가 상승. 인텔 오하이오주 설비에서의 메모리 생산 방안 등이 거론. 각 사측은 협력 관련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밝힘
APPL	애플	+0.3%	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자체 M8 Ultra 프로세서와 엔비디아(+0.8%) 네트워킹 장비를 결합한 엔터프라이즈 AI 서버 개발 및 외부 기업 대상 판매를 검토 중
BA	보잉	-3.7%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CEO가 상용기 생산 정상화 지연 및 노사 리스크를 언급하며 주가 하락. 주력 기종인 737 MAX의 월간 생산 목표(월 47대) 달성이 날개 제작 차질로 지연되고 있으며, 차세대 광동체기 777X 역시 엔진 인증 문제로 규제 승인이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 언급. 2027년 말 인도 가이던스를 유지했으나 이르면 10월 엔지니어 노조의 잠재적 파업 가능성이 일정 수준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
SPCX	스페이스X	+5.2%	완전 재사용 로켓 '스타십'의 14차 시험 비행 일정이 오는 9월 22일로 확정되면서 7월 테스트 성공에 이은 기대감에 추가 상승. 비행에 스타링크 V3위성도 함께 배치 예정
JBHT	J.B.헛트	-13.3%	CFO의 실적 가이던스 악화 발언으로 주가 급락. 구매운송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에 3분기 이익이 전분기 대비 5~10%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